



힘내자 후쿠시마

~ Voices from Fukushim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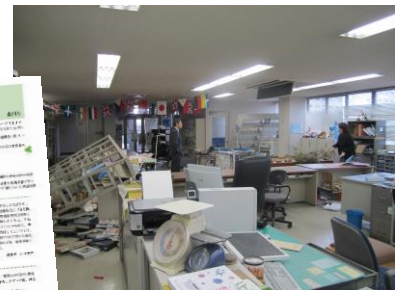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가 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3월 11일(금) 후쿠시마현 내 각지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추도하는 기원식이 열려, 희생되신 분들을 추도하고 후쿠시마의 부흥을 기원했습니다.

(공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 직후부터 본 협회 홍보지 'Gyro(자이로)'의 지진 부흥판으로 '힘내자 후쿠시마'를 발행하여 후쿠시마현 현황과 현내 국제교류, 협력단체 활동, 외국출신 현민의 목소리 등을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의 총집편으로 지진 이후의 5년간을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5년, 후쿠시마의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한달 반 후 '후쿠시마는 굴하지 않는다'라는 부흥의 기원을 담아 '힘내자 후쿠시마'를 창간했습니다. 발행 후 3년간은 클레아 파리 사무소와 서울 사무소에서 번역을 지원 받아 부흥, 복구를 향해 나아가는 후쿠시마의 현황을 일본어와 6개국어(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프랑스어)로 현내외 및 국외로 발신했습니다. 2012년 4월부터는 블로그에서도 발행해 왔습니다.



(오른쪽 사진) 지진 직후 본 협회 사무소 모습
(왼쪽 사진) '힘내자 후쿠시마' 창간호



2013년 6월 후쿠시마시에서 개최된 '동북육흔제'. 전국에서 모인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었습니다.

지진과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피해지 생활재건과 환경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공공 인프라의 복구, 정비가 진행되고 의료와 복지시설이 재개되는 등 조금씩 밝은 소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힘내자 후쿠시마'에서는 쌀 전량 검사와 농작물 방사성물질 검사 모습, 어업 현황 등 후쿠시마현산 농림수산물에 관한 소식이나 관광업 현황 등을 중심으로 소개해 왔습니다. 또한, 현내 각지에서 부흥을 염원하는 마츠리와 이벤트가 열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은 전국레벨의 '후쿠시마데스티네이션 캠페인(DC)'이 개최되었고, 관광객 방문수는 지진 전의 약 90프로까지 회복했습니다. 금년 4월에서 6월에는 '후쿠시마에프터 DC'를 개최하고, 관광객이 더욱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2년 12월 말에는 지진 전의 약 15% 감소한 9,259명까지 떨어졌지만 그 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5년 6월 말에는 지진 전과 거의 동일한 10,669명까지 회복했습니다. (법무성 '재류외국인 통계') 외국출신자는 동일본 대지진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에서 동국 출신자들 간의 연락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커뮤니티 결성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지금은 지역 공민관 등 전통문화 발표, 어학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열린 '외국출신자를 위한 방재강좌' 모습. 지진 대비와 재해 시 대처에 대해 배웠습니다.



후쿠시마현 내 각지 환경방사능 측정치(잠정치)

출전: 후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fukushima.lg.jp/>

후쿠시마현 홈페이지에는 현 내 각지 환경방사능 측정치(잠정치)를 발표하고 있고 (공재)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택 등의 제염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동일본대지진 직후와 비교해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마이크로시벨트/시간

일시	후쿠시마시	코오리야마시	시라카와시	아이즈와카마쓰시	미나미아이즈마치	미나미소마시	이와키시
(정상치)	0.04	0.04-0.06	0.04-0.05	0.04-0.05	0.02-0.04	0.05	0.05-0.06
2011. 4. 1 9:00	2.44	2.24	0.73	0.24	0.08	0.92	0.58
2016. 3. 1 9:00	0.20	0.11	0.09	0.06	0.05	0.09	0.07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의 방향과 거리	북서 약 63km	서 약 58km	서남서 약 81km	서 약 98km	서남서 약 115km	북 약 24km	남남서 약 43km

※ 측정지점은 후쿠시마시는 현북 보건복지사무소, 그 외 지역은 현 합동청사 주차장입니다. 측정장치는 고정형 MP 입니다.

※ 정상 수치는 현내 2009년도 방사선 레벨 조사 결과입니다. .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후쿠시마현에 살고 있는 외국 출신자들에게 지진 당시 상황과 현재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 협회 홈페이지에는 82명의 아카이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URL : <http://www.worldvillage.org/jishin/fukushima.html>

‘힘내자 후쿠시마’ 창간 당시 등록해 주신 테츠키 레이코씨와 고토우 캐서린씨에게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의 심정을 인터뷰했습니다.

테츠키 레이코씨 (후쿠시마시 거주, 중국 출신)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후쿠시마를 위해 뭔가 공헌할 수 없을까라는 강한 바람이 생기게 되었고, 지진이 일어난지 약 1년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업무는 통역과 번역이지만,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고 후쿠시마현에 재주하는 외국 출신자들을 위한 사회참가 서포트 등도 하며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후쿠시마 부흥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후쿠시마현 관광 위탁사업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전진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고토우 캐서린씨 (지진 당시에는 후쿠시마 거주, 현재는 오사카시 거주, 필리핀 출신)

동일본 대지진 직후, 제 휴대폰으로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자들로부터 연이은 문의 전화가 있었고, 저는 피난을 위한 버스나 항공기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후 필리핀 대사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었고, 당시 같은 필리핀 출신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4년 봄에 후쿠시마시를 떠나 현재는 오사카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타갈로그어 통역과 생활 상담에 대응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자치제에서 공연을 의뢰 받기도 해, 후쿠시마시에서 동일본대지진을 몸소 경험한 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정보 발신을 위해 힘쓰고 싶습니다.



FIA에서의 알림

○외국 출신자를 위한 생활상담창구 안내

본 협회에서는 외국 출신자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생활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00~17:15

●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 목요일 10:00~14:00

전화 : 024-524-1316 (상담전용)

E-mail : ask@worldvillage.org (상담전용)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우편번호: 960 - 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024-524-1315 FAX 024-521-8308

E-mail 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